

대법원 2016다240406

종업원지위확인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2. 13.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대전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40406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가. 사안의 내용

- 피고는 피고의 대전공장의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의 대전공장에서 위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근무해 온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또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사안임

나.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들 패소
- 원심 : 원고들 항소기각
- 원심(=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가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 가능했고, 그래서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에서 동일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지 않았음
- 피고 공장 내 공정들 중 일부만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반이 이루어지고, 공정 사이의 운반 작업은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음
-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생산량 또는 타이어 입·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음
- 그 밖에 피고의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피고의 임·직원 출신인 점, 사내협력업체의 영세성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원고들이 피고의 대전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의 결과

-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는 원심과 같음

3.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